

## 기억의공간

(알라이다 아스만 엮음, 그린비, 2011)

원종관\*

서론부터 도발적이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모여 있는 문명의 잔재로서 급증하는 쓰레기는 기록물보관소의 이면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듯하다”(26)

기록물관리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선 당황스럽다.

저자는 제임스 조이스의 말을 빌려 문자로 기록된 매체의 한계를 짚는다.

“문자를 뜻하는 낱말인 ‘letter’와 쓰레기를 뜻하는 낱말인 ‘litter’가 유사하다”(293)

남편 안 아스만과 함께 ‘문화적 기억’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 개정판이 나왔다. 2003년 경북대학교 출판부의 초판 인쇄 이후 상당부분의 재번역과 사실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기억이론 분야의 고전답게(?) 6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내용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목차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3부 “1장 기록물보관소”와 “5장 기록물보관소의 저편”이 그것이다.

쓰레기가 기록물보관소의 이면이라는 서론의 도발적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을까?

## 왜 <기억의 공간>인가.

우선, 왜 <‘기억’의 공간>인가.

1970년대 이후 기억의 테마가 역사학의 전면에 등장했다. 여기에 현대 역사학의 가계도(家系圖)가 펼쳐진다. 홀로코스트라는 재앙을 겪으며 심각하게 회의된 근대성, 1968년 ‘혁명’과 그에 따른 정치, 사회, 경제의 격변을 역사학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현대 역사학의 합리와 이성, 과학과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

반면 구조주의 역사학의 반편향으로 기억에 관한 연구는 붐을 이뤘다.(19)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인간들의 결속력에 대해 꾸준히 탐구했고 결론으로 결속력의 근원이 공동의 기억, 집단의 기억에 있음을 주장했다.(176~178) 기억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이라는 기존의 이론에 반기를 들며 기억의 집단적, 사회적, 선택적, 권력적 성격을 논증한 것이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기억의 역사화’란 늘 망각을 동반하는 선택적 작업이며 기억될 것과 망각될 것은 현재의 맥락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 부부는 알박스와 노라의 주장을 보완한다. 그들은 역사와 기억의 단호한 대립이나 전적인 동일함을 부정했다. 그리고 관계, 선택, 가치 등과 결합한 활성화된 기억으로서 기능 기억, 현재와의 활성화적 관계를 상실한 저장기억의 개념을 이끌어냈

다.(181) 그 두 개의 개념은 문화적 기억으로 수렴된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료적 역사학보다 당파적이고 ‘살아 있는’ 기억의 패러다임이 부상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스만은 여기에 집중했다.

한편, 왜 <기억의 ‘공간’>인가.

아스만은 한 시대가 당대의 과거에 대해 ‘보유’하는 소통적 기억과 달리 문화적 기억은 ‘의미’를 전승한다고 주장한다. 사물이 상징을 통해 ‘사물 자체의 기억’을 넘어설 때, 그 사물에 시간과 정체성의 차원이 각인된다는 것이다. 각인의 도구는 매체이다. 매체는 저장과 저작의 기능으로 기억을 유기적으로 엮는다.

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매체가 발달하며 기억은 어떻게 확장되었나.

그런데 매체를 통해 재현되지 않는다면 기억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나.

우선, 매체는 문화적 기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질적 기반이며 보조 수단으로, 인간의 기억들과 교호작용을 한다. 특히 문자는 2,500년 동안 기억에 대한 핵심적 메타포였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주장을 빌린다.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승된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비교할 수 없다. 지난간 삶이 남긴 잔여물, 건축물의 잔해나 도구들 혹은 무덤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그 위로 붙어닥친 시간의 폭풍으로 풍화되고 없다. 그러나 문자의 정신은 어쩌나 순수한지 그것이 전승되어 해독되고 읽히면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체이기라도 한 듯 우리에게 말을 한다”(256)

그런데 한편 문자(매체)로 기록되지 못한 것들의 운명은 어떠할까? 여기엔 트라우마가 있다. 트라우마는 몸 속에 저장된 기억이 의식에 의해 단절된 경우이다.(24) 따라서 트라우마는 몸에 직접 각인되어 그 경험을 언어적으로 작업하여 해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359) 개별의 자아를 압도하는 경험에 의한 폭력의 흔적, 거기에서 언어는 재현을 위한 기록을 하지 못한다. 홀로코스트의 재현은 트라우마로 인한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다른 방법으로 재현된다. 아스만은 문자매체가 담지 못한 기억과 망각의 역동성을 20세기 후반 독일의 설치예술을 통해 발견한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는 <상실의 집>이라는 작업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중 붕괴된 집 하나를 복원하고 그 집과 관련된 각종의 문서를 유기적으로 엮는다. <상실의 집>은 실종된 개별의 기억을 불러내고 공간에 기억을 배치함으로써 기억이 되살아난 공간을 형상화한다. 저자는 이런 예술적 시도를 통해 살아나는 곳을 기억의 ‘공간’이라 부른다.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고 아무의 것도 아닐 수 있는 역사를 보완하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매체의 한계를 넘어 되살아나는 공간. 거기에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이 있다.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아스만은 왜 쓰레기가 기록물보관소의 이면이라고 했을까?

역사를 넘어서려는 기억, 단순히 소통적 기억이 아닌 문화적 기억의 면면을 분석하는 <기억의 공간>에서 기록물보관소는 매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곳이고 그래서 문화적 기억의 형성엔 제약이 있는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보관소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공간(자크 데리다,

472)이고 사회적 삶에서 풀려나온 자료의 창고가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하나의 강압적 도구(푸코, 476)로까지 폄하된다. 또한 현존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문서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문화의 역사적 지식의 토대를 결정짓는 잠재적인 문건들을 은폐하는 장소이기도 하다.(아스만, 559)

하지만 아스만은 기록과 쓰레기가 기억과 망각으로 이분되지 않고, ‘보존적 망각’의 영역에서 역사학과 예술의 중요한 자양분을 이룬다고 덧붙인다.(559) 망각이 기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쓰레기 또한 기록에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27) 쓰레기란 완전히 쓸모가 없고 소실되고 파괴되거나 새로운 대상으로 보충되어 효용가능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대상들일 뿐이라는 것이다.(26, 524) 말하자면 쓰레기는 예술가와 작가들에 의해 뒤바뀐 기록물보관소로 주체화되는 역설이다.

기록물보관소가 가진 ‘정치적’ 한계는 ‘보존적 망각’을 통한 쓰레기의 효용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기억을 구성할 수 있다. 바로 거기에 기록물보관소의 사회적 소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억의 문제를 둘러싸고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현대사의 모순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것은 오늘의 우리를 규정한다. 윌리엄 워즈워스가 말하듯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이다”.

어제의 ‘소통적 기억’을 불러내 ‘문화적 기억’으로 재창조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들에게 있다.